

전북도의회 4년간 의정 마무리

새만금 잼버리 지원 조례안 등 16건 처리 최인정·허남주 의원 5분발언도 이어가

제10대 전라북도의회가 22일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최인정 의원(군산3·무소속)과 허남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발전 위한 충언을 아끼지 않았...

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 의원은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이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모두 압도적인 지지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전복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특히 송하진 지사께서는 전북의 현안사업인 군산경제문제를 해결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도민들께 나후탈피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용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전북발전과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제10대 도의회 선배·동료의원들과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및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이제 10대 도의회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만 앞으로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전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 직후 전주 시내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제10대 의원과 김광수 국회의원,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별연을 했다. /김진성 기자



제10대 전라북도의회가 22일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도의회 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성엽 의원 "평화당, 개선 넘어 혁명 필요할 때"

당 정책위 주최 토론회에서 전면 쇄신 주장

유성엽(민주평화당, 정읍·고창) 의원이 민주평화당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쇄신과 강한 추진력을 지닌 새 지도부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 주최의 당진로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지방선거의 참패를 인정하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강한 추진력과 관록을 동시에 지닌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먼저 광역단체장 하나도 못 내고 정당득표율도 1.5% 밖에 못 얻은 안타까운 결과에 대해 '호남에서도 외면 받은 호남당'이라고 규정하고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패배의 원인으로는 지역정당인지 전국정당인지 모를 '애매한 포지셔닝', 당 정체성과 노선에 대한 불분명에서 오는 '애매한 정체성', 그리고 적절한 후보를 내지 못한 '애매한 인재영입'을 꼽았다.



또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먼저 지역정당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 뒤, 경제정책에 대한 특위 설치 등 야젠다 선점으로 정책정당 이미지를 구축해 전국정당화로 나아가는 방법과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 극대화를 통한 실리 획득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지금의 평화당은 굴을 씹어도 탕자가 열리는 상황으로, 어

떤 인재가 와도 꽃피우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근본적 정치 토양부터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한 추진력과 관록을 동시에 지닌 새로운 인물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창선 박사와 권오성 박사가 발제를 하고 정동영, 유성엽, 윤영일, 박주현 의원과 고성국 박사, 배중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당의 미래를 놓고 여러 의견을 냈다. /김진성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민주·평화·정의 '개혁벨트' 제안

평화당 박지원 의원 "한국당·바미당 조속 협조 않으면 무소속까지 합치면 157석... 원구성 미뤄지면 국회기능 상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2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구성에 조속히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국회 원구성에서 민주당, 정의와 평화 교섭단체, 무소속을 합치면 157석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져



는 분들과 꼭 대화만 해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저는 157석의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원구성을 하루속히 마치는 것이 좋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며 "대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시한을 줘서 그 분들의 결정을 지켜보고 157석의 개혁벨트 국회라도 소집해 원구성을 하고 민생 및 개혁 입법 처리에 매진하자고 말씀드립니다"고도 촉구했다. /뉴스시스

고 질타했다. 이어 "저는 157석의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원구성을 하루속히 마치는 것이 좋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며 "대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시한을 줘서 그 분들의 결정을 지켜보고 157석의 개혁벨트 국회라도 소집해 원구성을 하고 민생 및 개혁 입법 처리에 매진하자고 말씀드립니다"고도 촉구했다. /뉴스시스

전라고 출신 동문들 지방의원 당선 '화제'

이한기 도의원 당선인 등 8명

전라고 출신 동문 8명이 6·13 지방선거 지방의원에 당선돼 화제가 되고 있다.

김영락 전라고 총동문회장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라고 동문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4년간 성실의 의정을 펼쳐 지자체의 발전과 동문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길 기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한기, 라도균, 김윤철, 박기열, 이병철, 이상섭, 송영진, 두세훈

전라고 출신 당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회. 이한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진안군) ▲5회. 라도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중로구의원 ▲6회. 김윤철 민주평화당, 전주시의원(완산구) ▲10회. 박기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동작구) ▲11회. 이병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전주) ▲11회. 이상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시흥시의원 ▲24회. 송영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의원(덕진구) ▲25회. 두세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완주군) /익산=장영원 기자

당대표-최고위원 별도 선출 '단일성 지도체제' 사실상 확정

민주당, 전준위 구성 확정

위원장에 4선 오세재 의원 중앙당선관리위원회에 노용래 조강특위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이해찬·이종걸·최재성 전해철 등 당대표 후보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세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갖고 ▲전준위 구성의 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조강특위) 구성의 건 ▲관리당원 선거권 부여 기준 마련의 건 등을 심의한 바 있다.

전준위는 8월25일 개최 예정인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를 맡는 당내 기구다. 전준위에서는 당 지도체제 개편과 함께 대표·최고위원 선출 방식 등 전당대회 규칙을 마련하게 된다.

전준위 위원장에 4선의 오세재 의원을 선임했다. 또 부위원장에 민병두 의원, 총괄본부장에 김민기 의원, 간사에 김영진 의원을 임명했다. 전준위에는 남인순·서형수·조용천·정재호·김종민·재운경·송옥주·정춘숙·이재정·윤준호 등 10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이밖에 이날 당무위에는 전준위에 노동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 15인으로 구성했다.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노용래 의원(3선, 서울)이 선출

되었으며, 안호영(조선, 전북), 송갑석(조선, 광주), 이재정(조선, 비례, 여성), 청년, 권미혁(조선, 비례, 여성), 이후삼(조선, 충북), 박경미(조선, 비례, 여성), 오영훈(조선, 제주) 의원이 위원으로 선출되어, 총 8인이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춘석 사무총장(3선, 전북)이 맡고, 위원에는 임종성 조직담당사무부총장(조선, 경기)을 비롯해, 한정애(재선, 서울, 여성), 백혜련(조선, 경기, 여성), 박재호(조선, 부산), 이후삼(조선, 충북), 심기춘(조선, 강원), 신동근(조선, 인천) 의원, 최윤영 변호사(여성, 청년, 윤리위원), 권미경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여성), 고성민 전국대학생위원장(청년)이 선임되어 총 11인으로 구성됐다.

관리당원 선거권 부여기준의 경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입당하여 지난해 7월1일부터 오는 30일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한편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과 관련,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뽑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선출 방식은 당 대표, 최고위원을 동시에 선출해 득표순으로 정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보다 대표 권한이 더욱 강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해찬 의원(7선), 전날 공식 출마를 선언한 이종걸 의원(5선), 김진표·박영선·설훈·송영길·최재성 의원(4선), 우원식·우상호·윤호중·이인영 의원(3선), 박범계·신경민·전해철 의원(재선), 김두관 의원(조선) 등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뉴스시스

김진 전 한국당 상임고문, '보수 그라운드 제로' 토론회서

"물러나라 김성태... 탈당하라 김무성"

"비대위원장·당대표 선출시 중도파가 당 이끌어야"

홍준표, 당권 위해 내부총질... 낮은 품격에 유권자 분노"

심재철 의원 "지선 참패 존망 기로... 환골탈태해야" 지적

김진 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22일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보수 그라운드 제로'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선거 참패 책임을 물어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2선 후퇴와 중진인 김무성 의원의 탈당을 주장했다.

김 고문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탈당파의 대표적 인물인 김성태 원내대표는 선거 패배 책임이 크다. 그가 물러나고 중도파로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며 "친박 좌장 서정원 전 대표가 탈당했으니 비박 좌장 김무성 전 대표도 탈당해야 한다. 두 사람의 탈당으로 두 계파는 근신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 패인에 대해 그는 ▲홍준표 대표의 낮은 품격과 독주에 대한 분노 ▲정치 이전에 인간에서 실패한 한국당 ▲외면 당한 보수의 스타일 ▲당의 극심한 분열을 지적했다. 김 고문은 "집도끼는 원래 한국당이 실수해 두 웬만한 투표장에 나가 한국당을 찍는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상당수가 기권했다. 이유는 '한국당이 보기 싫어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 유권자는 품격을 중시한다. 홍 대표는 막말과 품격 없는 언행으로 이들을 화나게 했다. 한국당의 저질 스타일에 분노한 것"이라며 "좌파 정권과 싸우려고 뽑았는데 자신의 당권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동지들에게 총질했다. 탈당파의 복당을 위한

명분 때문에 당헌을 어겨가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쫓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2명이나 감옥에 있는데 한국당은 여전히 계파 분열이다. 친박도 친이도 똑 같다. 산토끼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반성이나 변화가 없었다"며 "친박은 버렸고 탈당파 친이계는 오히려 당의 권력을 차지했다. 친박도 친이도 아닌 세력, 계파싸이 없는 세력이 당을 맡아야 했다"고 말했다.

무너진 당을 재건하기 위한 처방으로 김 고문은 세대교체와 새 인물, 새 스타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과 대선에서 졌으면 당은 당연히 새 인물을 수혈하고 세대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그 인물이 그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위 구성과 차기지도부 선출 과정을 통해 새 파를 수혈해야 한다. 민주당에 맞서 이 당에도 차기 지도자 세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우과의 탁현민을 발굴하라. 당 운영도, 홍보도 세련되게 해야 한다. 좌파와 스타일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를 통해 존망의 기로에 섰다. 지금 한국당은 갈림길에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시스